



정부는 미국 정부와 원전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협력을 진행 중임

<보도 주요내용>

8.24.(토) 조선일보는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에서 K원전 체코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태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조아라 (044-203-5332)

